

기아차·삼성전자·현대삼호중 동반성장 '최우수'

지역 협력업체와 상생노력

삼성전자 3년 연속 최우수

홈플러스 3년 연속 최하위

광주·전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아차 동차와 삼성전자, 현대삼호중공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기아차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뛰어올랐다.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 사였으며,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다.

기아차와 삼성전자, 현대삼호중공업은 '최우수' 등급 14개 기업에 포함됐다. 특히 기아차와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전년보다 5점 이상 점수가 상승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경우 '올해의 중소기업' 제도를 통해 61개의 광주지역 협력업체 중 디케이산업과 우성정공, 뉴모

텍 등 협력사를 선발, 지원·육성책을 추진했다. 특히 11일엔 광주지방노동청과 협력기업 근로조건 개선과 인력난 해소 등 대기업·협력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동반성장 활성화에 나섰다.

3개 기업 외에도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 SDS, 코웨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 최우수를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이 포함됐으며, 양호 등급에는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메카닉, 롯데홈쇼핑, 만도,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등이 들어갔다.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농협 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투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스리엠, 홈플러스, BGF리테일, LF(舊LG패션), STX 중공업 등이었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지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공정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거래관계의 공정성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협약 평가 결과에서는 대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력 부문은 대기업의 객관적 지원 실적이 높았음에도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4.67 (+2.87)

금리 2.82%

▲ 코스닥 533.30 (+0.66)

▼ 환율 1015.70원 (-1.50)



연어 통조림 뜨니 참치캔 흔들

이마트 등 연어 점유율 20%

참치 80%→60%로 떨어져

통조림 시장의 '새 얼굴' 연어 통조림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30년 동안 '국민 통조림' 자리를 지켜온 참치캔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11일 이마트 등에 따르면 연어캔 제품이 처음 출시된 지난해 4월 이후 월별 수산물 통조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연어캔 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매장의 연어캔 매출비중은 올해 1월을 계기로 10%가 넘었으며 2월 11.5%, 3월 11.0%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12월 10.9%를 기록한 데 이어 꾸준히 성장해 지난 4월 20%대를 넘겼다.

반면 참치캔 점유율은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80%대를 오르내렸으나 지난 달에는 두 매장 모두 60%대까지 떨어졌다.

연어 통조림 시장은 가장 먼저 제품을 내놓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사조해표와 동원F&B 등 3개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가장 먼저 제품을 내놓았고, 이어 지난해 8월과 9월 사조해표와 동원F&B가 잇따라 경쟁에 가세했다. 선두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사조해

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핑크 어종을 이용한 제품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동원F&B는 고급 어종인 '코호 연어'를 이용해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연어 통조림 시장 규모는 78억 원 정도지만, 올해 업계는 시장 규모가 500억~600억 원대로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어 시장의 급성장을 둘러싼 시장의 해석과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연어 통조림이 30년간 '국민 통조림'으로 굳건해온 참치 통조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의견과 참치캔 시장과는 무관하게 연어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매출 분석 자료를 보면 연어 통조림이 참치 통조림 시장을 일부 잠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해 보인다.

이마트 광주 상무점 관계자는 "판촉 행사 여부에 따라 매출 등락이 있긴 하지만 연어 통조림 시장이 커지면서 참치 통조림 매출은 차츰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다만, 연어가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늘려 참치를 대체하려면, 김치찌개나 김밥 등 그동안 참치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우리 음식 문화에 연어가 스며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수 하위권

경제활동인구 대비 광주 16.2% 전남 13.5%

주거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투자자 중 광주와 전남 지역 투자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10% 초·중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와 통계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거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는 441만3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2573만6000명) 대비 17.1%에 달했다. 이중 서울과 울산이 각각 25.1%와 24.3%에 달해 전국의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 시·도는 20%를 모두 밑돌았다.

충북 18.8%, 강원 17.1%, 대전 17.0%, 전북 17.0%, 대구 16.9%, 부산 16.2%, 광주 16.2%, 충남 15.7%, 경기 14.6%, 경남 14.4% 순이었으며 전남은 13.5%로 하위

를 기록했다. 인천은 10.8%에 그쳐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았고 제주는 9.0%로 전국 최하위였다.

한편 지난해 주식투자자는 481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이 148만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5%), 부산(7.0%), 경남(5.5%), 대구(4.7%) 순이었다. 광주(2.7%)는 13만2000명, 전남(2.2%)은 10만7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주주 수는 증가했으나 보유 주식 비율은 전년(광주 2.7%, 전남 2.2%)과 변함이 없었다. 소수 주식 수 역시 17개 시·도 중 광주는 7억306만주로 12위, 전남은 5억4710만주로 13위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T, 상하이 이동통신 박람회서 3배 빠른 '기가와이어' 소개

KT가 11일부터 서울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AE)'에 참가해 기가 인터넷 시대를 이끌 유무선 인프라와 글로벌을 겨냥한 융합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진은 상하이 현지에서 모델들이 기존의 구리선을 바꾸지 않고도 3배 이상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기가와이어'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철뉴스

5월 광주 고용률 59.7%... 사상 최고치

지난달 광주 지역 고용률이 60%대에 첫 진입했다.

11일 호남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고용률은 59.7%로 전년 동월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광주지역 고용률은 호남지방통계청이 고용 동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1996년 이후 최고치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그동안 50% 중·후반대를 오르내리다, 지난 4월 59.0%에 진입했다.

광주지역 취업자는 7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7000명(5.3%) 증가했고, 지난 2월 71만8000명, 3월 72만7000명, 4월 74만명으로 증가하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2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00명 감소(-11.3%)했다. 한편 전남지역 지난달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는 9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00명(0.3%)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 (보증금 1억 4000만) 시비 있음
- 강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옵션 편백 3월중공 매매가 7억3천
- 기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 나주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자택지 88평 매매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필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 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 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계림동 4차도로점 상업지 571㎡(173) 공사지가 7억 은행 5억 5천 9억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분상초등학교 부근 대지 196㎡(59) 건물 162㎡(49) 큰 아파트와 교환도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지면 649㎡(210) 건물 522㎡(158) 공사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1200) 18억 2천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역부근 고신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만원의 매도 5억 2천
- 차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물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원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덕면 관내리 853㎡(257) 공장·창고·동작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택 적합 부지 나주시 송림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 매도 대출인수하고 3천만원
- 쌍촌동 5.18공원2차부근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가와 인접 원룸 15개 5억 6천
- 농성동 소방도로점 대지 206㎡(62) 공사지에 매도 8500
- 보성북문 산 68430㎡(20700) 교환가능 1억 3천
- 조산대 앞 동양동 대로변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와 원룸들 18개 보증금 1억2천선 월 500원 수익 8억7천
- 쌍촌동 나재지 295㎡(89) 원룸 적합 1억7천
- 나주시 신포면 별장부지 790㎡(234) 매도 1억천

임대

- 쌍촌동 운천역부근 원룸촌지 1층 234㎡(71) 오락실 호프집 대형식당 PC방 등 적합 보증금 5천에 월 180원 예정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1층 구분매도 85㎡ 매3.5억(보5천, 월150만포함)
- 회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렌치식업 인접
- 서구 쌍촌동 5층 상가주택 매 6.8억(보 2100만, 월400만포함)
- 서구 쌍촌동 대로변 3층건물 매 9.7억(보5천, 월520만포함)
- 서구 차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상무, 첨단 대형몰건 다수보유(매수상담환영)

대지/전답

- 북구 용두동 1중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매 12억(창고적합)
- 북구 용정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지역 29,800㎡ 매매39억
-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0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벽진동 창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 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워케이션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원룸 금매

대지 280㎡ (80.5평)
건평 190평

신축 2012년 준공
방금 18개

월임대수입 540만

은행용자 1억4천만

매도가격 3억3천만

나주시 이창동 택지지구내
010-3200-3162